

설해를 알자

설해는 폭설 지대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강설량이 적어, 눈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이 대설에 휩싸이면, 생명을 위협하는 재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01

고후시에 내린 역사적인 대설

헤이세이 26(2014)년 2월 14일부터 15일에 걸쳐 계속해서 내린 대설은 고후시에서 114cm의 적설을 기록하며 메이지 27(1894)년부터 관측한 이래 사상 최대의 적설량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야마나시현은 교통망이 차단되고 마치 육지 위의 외딴 섬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고후시의 최대 적설량은 49cm[헤이세이 10(1988)년 1월]였습니다. 그 기록을 크게 웃도는 114cm의 적설은 사람들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대설은 평소 강설량이 적어, 거의 쌓이지 않는 지역에서 역사적 대설이 내릴 경우에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을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헤이세이 26(2014)년의 대설을 교훈 삼아 대비에 만전을 기합시다.



헤이세이 26(2014)년 2월
관측 사상 최고치 114cm의 적설량을 기록한 고후시
사진 제공 : NPO 법인 재해·방재 자원봉사 미래회

| 눈에 의해 예상되는 피해 |

인적 피해

보행중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제설작업 중에 일어나는 사고 등.



라이프라인 피해

전선이나 전화선의 단선 등으로 인해 전기·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도로와 철도 등의 교통망이 차단되어 이동이 불편해지고 유통망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건물 피해

가옥이나 카 포트 등의 붕괴 등이 발생한다.



눈사태 피해

토사재해 경계구역 등, 산이나 경사면이 많은 지역에서 눈사태가 발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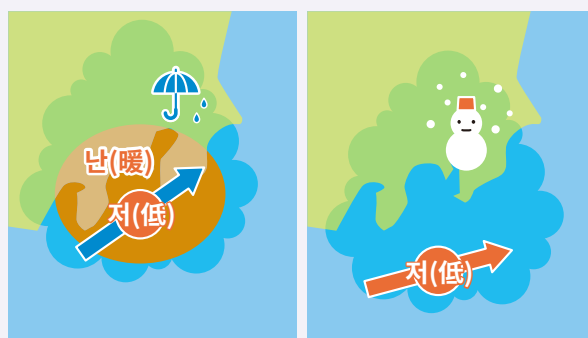
| 남안저기압이란 무엇일까 |

헤이세이 26(2014)년에 내린 대설은 ‘남안저기압’의 영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고후시에서 대설이 예상되는 것은 주로 남안저기압이 다가오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남안저기압은 혼슈의 남쪽 연안부(남안)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통과하는 저기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를 내리는 저기압이지만 ‘한기’로 인해 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가 될지, 눈이 될지의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기온’입니다. 6°C 밑으로 내려가면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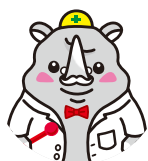
대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저기압이 간토 지역에 너무 근접하지 않은 거리에서 통과하는 경우입니다.

남안저기압의 발달 상태 및 코스가 약간 벗어남에 따라서도 기온이 변화하기 때문에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예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남안저기압이 접근해 왔을 경우에는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면서 눈이 올 것이라는 전제로 대비를 하도록 합시다.

함께 확인하자



대설이 내리면 고후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따뜻한 겨울에는 대설 걱정을 안 해도 되나요?



고후 분지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대설이 내리면 교통망이 차단되고 고립될 위험성이 있어 생활 기능 등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한기의 유입이 적으면 눈보다는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겨울에도 한기가 유입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타이밍에 남안저기압이 통과하는 경우는, 대설이 될 위험이 높아지므로 따뜻한 겨울이라도 방심해서는 안됩니다.

설해로부터 몸을 지키자

폭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해 평소에 대비하고
만일의 사태에 주의해야 할 것을 확인해둡시다.

| 사전 대비 |

대설이 오면 라이프라인이 단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년에 전국 각지에서 강설에 의한 정전과 단수가 일어나거나, 또한 눈길에서 전도 사고나 교통사고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비축품 등의 구비는 P39・40을 참고하여 눈이 많이 올 경우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둡시다.
온 가족이 함께 이야기하여 우리 집의 필수품을 미리 준비합시다.

제설

제설도구는 대설 직전이 되면 품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면 안심.



방한

손난로나 등유도 미리 준비해둔다.



자동차

스노우타이어를 창착하거나 타이어 체인을 준비하고 연료는 가득 채워둔다. 차량 안에 모피와 같은 방한용품도 준비해둔다.



전도

전도 대책으로, 가능하면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장화 등을 준비해둔다.



알아둡시다

넘어지지 않게 눈길 걷는 법

-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걷는 중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다.
- 짐은 되도록 손에 들지 않는다.
- 몸을 보호하도록 쿠션이 될만한 두터운 복장.
- 잘 젖지 않고 발수성이 있는 소재의 옷을 착용한다.
- 좁은 보폭으로 똑바로 발을 딛는다.



눈길 운전에 주의할 포인트!

반드시 스노우타이어나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며, 차간 거리를 충분히 두고 평소보다 천천히 운전합니다. 급발진, 급브레이크, 급핸들링은 위험합니다. 터널 입구나 다리 위는 노면이 얼어붙기 쉬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아두세요

혹시 차가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머플러 배기구가 눈으로 막히면 차량 내에 배기가스가 들어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머플러가 눈으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자주 제설을 하거나 엔진을 끕니다.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

배기가스가 차 안에 유입되면 위험합니다. 원칙적으로 시동을 끄도록 합니다!

자주 제설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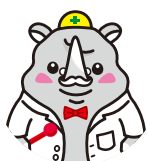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 경우는 머플러가 눈으로 인해 막히지 않도록 합니다!



함께 확인하자



대설이 올 때는 어떤 것에 주의가 필요한가요?
눈 치우는 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대설이 오면 외출은 삼갑시다! 도로 통행금지나 교통 기관의 혼란이 발생하여 이동이 곤란해지거나, 생각하지도 못한 부상과 사고에 직면할 위험이 있습니다. 제설 작업은 옥상이나 나무 등, 머리 위 낙설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반드시 두 명 이상이 함께 하세요. 눈은 쌓이게 되면 무거워지므로 자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도로나 수로에 눈을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